

金日成 主義의 展開와 理論體系[※]

高 性 俊

I. 서 론

모든 공산체제는 맑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하나의 공식 또는 관정적 통치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체제성원 모두가 지지하도록 요구된 통치이데올로기는 사회체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한다. 그것은 체제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결정해 주는 지도이념으로서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변화시켜가는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체제성원 모두의 행위규범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의 선악을 가려 주는 종교에 해당되기도 한다.¹⁾ 따라서 공산체제의 경우 생존과 발전을 지향함에 있어서 통치이데올로기의 비

※ 본 연구는 88년도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 이상우, "정치이념, 사회변화와 대남관계",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증보판(서울: 법문사, 1985), p. 294.

중은 지대한 것이다.²⁾ 특히 정책을 변화시켜 가려 할 때에는 먼저 통치이데올로기의 재조정작업부터 착수하여 정책추진의 정당성확보와 성원의 적극적 추진에 참여를 꾀한다.

중국의 경우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에 앞서 보여준 통치이데올로기의 구조변화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레닌주의'를 강조함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전체주의체제의 성격이 강한 북한에서는 통치이데올로기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 북한체제 전반을 지배해 온 절대적 지도원리이며 모든 정책을 형성지도 제약하고 또한 체제성원들의 행위준칙을 결정하는 도덕규범으로서 개개인의 생활과 사고방식까지도 규정지어 왔다.⁴⁾

북한은 정권초기에는 통치이데올로기로 맑스·레닌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김일성 1인지배체제 확립과정에서 '主體思想'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그에 의해서 이를 '金日成主義'로 호칭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대 초부터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은 해방이후 세대로서 공산당 권력의 정통성의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명력을 가지지 못하였기

- 2) 공산체제의 분석에 있어 통치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접근의 필요성은 통치이데올로기가 현재의 정치형태를 위한 '준거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체제의 미래사태 전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 즉 예측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Clemens Dutt와 같은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학자는 "사회주의 법칙에 관한 마르크스과학은 사회의 모순의 미로를 꿰뚫고 올바른 출구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사건들이 전개될 로정 역사발전의 방향 및 사회진보의 다음 단계를 예측케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Clemens Dutt (ed.)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Moscow :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2). p. 17; 이명남, "정치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p. 2에서 재인용
- 3)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통치이데올로기의 수정에 관한 논문은 조정남, "공산주의이데올로기와 개방화정책", 「동아연구」, 제8집(서울 :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6), pp. 77~88 참조.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저 하용출역, 「페레스트로이카」(서울 : 사계출판사, 1988) p. 170 참조
- 4) 양성철·박한식 편저, 「북한기행」(p. 221.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업적이 바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발전시킨 일이라는 것이다.⁵⁾

북한이 정권수립 초기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채택한 통치이데올로기는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스탈린에 의해 틀이 잡힌 맑스·레닌주의였다. 그러나 이런 이념을 기반으로 삼아 러시아의 여건과는 다른 상황과 조건을 갖춘 북한지역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다 보니 소련의 경우와는 다른 고유한 경험과 특수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합리화·이론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북한에서도 소련이 마르크스주의를 변형시켜 맑스·레닌주의를 창안하고 중국이 모택동 사상을 창안한 경우처럼 북한실정에 맞는 통치이데올로기를 만들게 되었다.⁶⁾ 이렇게 하여 북한 나름대로 창안된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체계화되었고 사회의 부분에서 구체화 되어 나갔다.⁷⁾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은 모두 이 주체사상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북한사회의 변화는 모두 이 주체사상 아래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들의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북한체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제까지 국내외의 학계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가 성행해 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들은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라는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70년대 중

5) 탁진·김강일·박용재, 「김정일 지도자」, 제2부(동경: 동방사, 1984), pp. 12~22 참조

6) 김갑철, 「북한공산주의: 이론과 실제」(서울: 문우사, (1984), pp. 141~161 참조.

7) 북한의 당 이론가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과정은 주체사상의 구현·심화과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이 사실은 양성철·박한식 편저, 「북한기행」, 전계서 pp. 115~1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헌은, 황장협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근로자」, 1979년 4호 참조.

8) 김남식,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정치논총」, 제28집 1호, 1988 pp. 123~124.

반부터 시작되어 80년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보여지는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초점을 두고 배경, 내용, 의미, 전망 등으로 나누어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① 어떠한 배경하에서 주체사상을 격상시킨 '김일성주의'를 맑스·레닌주의보다도 전면에서 부각시키려고 했는가? ② 이것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③ 김정일의 업적으로 부각되는 '김일성주의'의 이론적 구조는 무엇이며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으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비교하여 지속된 점과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 ④ 김일성의 사망과 북한사회의 변화라는 미래상황과 관련시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김일성주의'는 계속적으로 기능적일까? 그리고 '김정일의 권력승계'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다.

Ⅱ.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의 배경 및 정식화 과정

1. 배경

1970년대 중반 金日成의 權力이 金正日에로의 後繼體制 構築이 본격화되면서 北韓에서는 主體思想을 이론화되고 체제화시킨 사상으로 제시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러한 主體思想의 理論的 體系化는 동시에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화하는 변화의 형태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金日成主義」화하는 주체사상을 그동안 지도원리로 삼아온 맑스·레닌주의와 同格내지는 上位의 이데올로기로 公式化하려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의 경우 毛澤東 생존시 자신의 思想을 主義로 자칭해 본적이 없는 점과 대비

하여 金日成主義化는 특이할 만하다.⁹⁾

金日成이 1971年 6월에 개최된 社勞靑 第6次大會에서 처음 후계자문제를 거론한 이후 당에서의 金正日의 지위는 빠른 속도로 상향조정되기 시작했고 1980年 10月 黨 第6次大會에서 서열 제4위로 부상되면서 후계자로 공식인정을 받았다.¹⁰⁾ 그는 1983년부터는 黨序列 2위를 굳히면서 명실공히 黨政事業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北韓이 內外로부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共產主義역사상 前例가 없는 後繼體制를 構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金日成이 자신이 死後 혹은 退陣後 예상되는 혼란을 예방하고 그의 思想과 權威를 계속 절대화해 줄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려 했다는 것이다.¹¹⁾ 또한 金正日에로의 후계자결정은 金日成이 근대화 목표들의 추구하고 혁명영원의 유지라는 이중적 노력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¹²⁾

그러나 後繼者인 김정일에게는 카리스마도 革命業績도 없는 解放後 世代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정통성의 결여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하여 北韓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그 하나로 「主體思想의 金日

-
- 9) 毛澤東도 자신의 사상을 “마르크스의 일반적 진리를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부시킨 중국의 맑스주의 또는 중국화한 맑스주의인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상을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主義’로까지 격상시키려 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林隱, 「金日成王朝秘史」(서울: 한국양서, 1982), pp. 283~285. 프란츠 슈만(Franz Schurman)에 의하면, 毛澤東은 맑스-레닌주의를 순수이데올로기로 선정하고 자신의 사상을 이를 보완하는 실천이데올로기로 여겼다. Franz Schurma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 320.
- 10) 영홍철, “북한의 정치권력구조개편 연구”, 「현대사회」, 29(1988년 봄호), pp. 183~185.
- 11) Y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XXVI, No.10(October 1986) pp. 1093~1094).
- 12) 이정식, “조선노동당의 발전과정과 김정일의 대두”, 김준엽·스칼라피노공편, 「北韓의 오늘과 내일」, 전계서, p. 46.

成主義]化라는 「公式이데올로기의 位相變化」를 통한 김정일의 이데올로기적 업적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때문에 북한은 김정일이 「영구불변의 진리」인 主體思想을 구현시키고 발전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北韓住民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문제해결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金正日에 의해 主體思想이 김일성주의의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宣傳함으로써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대체로 김일성체제구축과 관련하여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에게 카리스마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일성은 20년 이상의 權力鬭爭을 통해 자신의 적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抗日鬭爭經驗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정치적 기반 이로 인한 카리스마적 요인 또한 그의 권력 절대화에 결정적 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金正日是 통치자로서 필요한 카리스마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김일성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김정일로서는 김일성에 버금가는 전지전능의 半人半神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이비 카리스마造作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北韓은 「대학시절에 벌써 위대한 主體思想을 완벽하게 체득한 김정일동지는 남다른 안목과 비상한 탐구열의로 학과토론이나 학술강연 논문집 필과 같은 科學研究活動을 활발히 벌이시어 주체사상을 힘있게 논증하였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 풍부화시켰으며,¹³⁾ 김일성수령의 革命思想을 김일성주의로 공식화 하였다」¹⁴⁾고 선전하는 등 김정일이 永久不變의 眞理인 主體思想을 계승·발전시킨 장본인이라는 概念을 주민들에게 교화시킴으로써 「혜성과 같이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카리스마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⁵⁾

⁵⁾ 즉 김정일은 政權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기여를 앞장 세워 자신의 正統性 確保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¹⁶⁾

13) 탁진 외, 「김정일 지도자」(2부), 전계서, p. 77.

14) 상계서, p. 12

15) 박한식, 「주체사상과 북한의 외교정책」, 박재규편, 「북한의 외교정책」,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p. 81

16) J. Cotton, "The Ideology of the Succession in North Korea", *Asian Perspective*, Vol. III, No. 1(Spring-Summer, 1987), p. 8.

김정일이 김일성주의를 정식화내지는 강조함으로써 노리는 두번째 의도와 목적은 金正日 反對派들을 숙청 내지는 견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이 「主體」의 강조를 통하여 反對派를 숙청함으로써 그의 일인 독재 체제를 확고히 구축했던 것처럼¹⁷⁾ 김정일은 「주체」와 「김일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려한다. 1967년 5월의 제15차 전원회의에서 金日成이 唯一思想 體系의 확립을 요구한 것은 그와 반대되는 「자본주의 사상」「수정주의」「교조주의」「사대주의」「종교주의」「지방주의」「가족주의」 등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자는 모조리 숙청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었고, 또 실제로 그들은 숙청되어 갔다. 마찬가지로 김정일도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 데 중요한 것은 사대주의의 교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특히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공산주의 운동에 큰 해독을 끼쳐온 우리나라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黨과 革命的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¹⁸⁾고 하는 등 주체를 강조하는 까닭의 하나가 반대파를 견제하고 숙청하는 데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김정일이 主體의 강조를 통해 노리는 세번째 목적은 자기의 업적을 특히 경제적인 업적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 자료를 종합해 보면 모든 면에서 김정일은 金日成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며 김일성과 같은 스타일이 指導者役割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²⁰⁾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후광만으로는 권력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어떤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김정일체제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등 실질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7) 허동찬, "주체사상의 정제", 허동찬, 「김일성평전(숙)」, (서울:北韓研究所, 1988), pp. 544~566.

18) 상계논문

19)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근로자」, 1982년 11월, p. 15.

20) 박한식·양성철 편, 「북한기행」 전계서, pp. 67~68.

본다. 따라서 박한식교수의 지적대로 金正日이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심오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효율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다면 그의 정통성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²¹⁾ 실제로 김정일은 “경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방면으로 발전되어야 한다”²²⁾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배합하여”²³⁾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지어서 김정일이 「主體」를 강변하고 있음은 주민들의 경제적 가용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자 하는 때문이라 하겠다.

2. 정식화 과정

오늘날 北韓은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고 선전하고 있다.²⁴⁾ 그들은 김일성주의가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思想이며 세계의 모든 피착취·피압박인민에게 투쟁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지도사상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는 사상이라 주장하고 있다.²⁵⁾ 김정일이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정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도체계가 튼튼히 섰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²⁶⁾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21) 박한식, “북한의 주체사상과 외교정책”, 전계서, p. 82

2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國土統一院, 「金正日 名義의 論文·談話」(1987), p. 109.

23) 김정일, “따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근로자」, 1983년 5호, p. 9.

24) 박한식·양성철 편, 전계서, p. 63.
특히 「김정일 지도자」(2부)와 영광스러운 ‘E·D’참조

25) 임은, 전계서, p. 285.

26) 김정일, “조선노동당은 ‘E·D’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전계서, p. 8.

그들은 「영구불변의 진리」로서 金日成主義의 完結을 確信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김정일은 金日成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定式化하려 했을까? 북한측이 내놓은 선전책자에 따르면 김정일은 1970년 5월경에 벌써 그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고 한다.²⁷⁾ 김정일은 1970년 5월 한 고위당직자에게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²⁸⁾

「김일성주의(Kimilsungism)는 우리시대의 기본사상(basic thought)입니다. 그것의 기본골격은 전시대 사상들의 골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김일성주의는 수천년동안에 걸쳐 인간들의 지혜에 의하여 만들어진 과학적주체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대의 유일한 현대적 지도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표현하고 있으며 인류사를 통틀어 영원할 주체혁명교의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적으로 세계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과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어 1971년 가을 三池淵근방에서 휴양중인 한 수행원에게 김일성주의가 아직 정식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시켰다고 한다.²⁹⁾ 한편 1974년 2월 18일 전국 당사상 사업부문 일꾼 강습회에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 사업이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김정일은 「우리시대는 주체의 시대이며, …… 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입니다.」³⁰⁾라고 하면서 김일성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

27) 탁진외, 전계서, p. 4.

28) Inoue Shuhachi, 「Modern Korea and Kim Jong Il(Tokyo : Yuzankaku, 1984), p. 173.

29) Ibid, p. 174.

30) 탁진외, 전계서, p. 15.

의 전일적 체계입니다. 인류사상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³¹⁾

김정일은 또 이 연설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1974년 4월에는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1976년 10월에는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라는 論文을 발표하는 등 金日成主義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한 것으로 되어 있다.³²⁾ 一黨獨裁國家에서 이데올로기의 최종적 解釋權은 독재자 자신이 장악하는 경우와 같이 1980년 10월 당 제6차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김정일은 主體思想의 正統的 解釋權을 장악한다. 그리하여 1982년 3월에 그는 主體思想을 체계적이고 이론적 사상체계의 틀로 제시하려는 뜻이 담긴 論文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發表하게 된다.³³⁾ 현재 北韓은 김정일의 이 論文이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연구, 선전과 교양을 위한 참된 교과서,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기념비적 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불멸의 전투적 기치이다”³⁴⁾라고 主張하고 있다. 즉, 김정일에 의하여 主體思想의 體系化가 이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곧 「김일성주의」로 宣稱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이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체계화(金日成主義化)

31) 상계서, p. 16. 이 책자는 “김일성주의! 그것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영원한 생명력을 확인하신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온 세상에 선포된 과학적인 정식화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同書, pp. 15~16

32) 위 논문중 1974년 4월에 썼다는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근로자」에 발표된 것은 1984년 4호이다. 따라서 쓴 당시보다 나중에 발표한 것이라면, 그것은 김정일의 ‘이론적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33) 「로동신문」, 1982년 4월 1일자

34) 김창원,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 「근로자」, 1987년 12호, p. 13.

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 드’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 10)” “혁명적 수령(1982. 10)”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1983. 5)”,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7)” 論文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아직 ‘김일성주의’를 黨規約이나 憲法에 公式이데올로기로 明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김일성주의」라는 用語를 「로동신문」, 「근로자」 혹은 黨이나 政府 高位層의 연설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金日成主義가 獨創的 思想이 갖추어야 할 體系의인 哲學·科學·歷史理論이 미비하여 金日成主義에 대한 자신감을 못갖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또한 맑스·레닌주의를 指導理念으로 삼고 있는 中·蘇를 비롯한 共產圈의 비난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⁵⁾

Ⅲ. 「김일성주의」의 체계

북한은 아직 「金日成主義」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金正日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북한은 온갖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에로의 정식화를 꾸준히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김일성의 사상이 「主義」로 불리울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되기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주장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

35)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크게 강조하긴 하지만 이미 일찌기 부주의하게도 김일성 스스로가 일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와같은 사상은 결코 우리가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맑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같은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였을 뿐입니다”라고 자인한 적이 있다 (日本 <毎日新聞>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근로자」, 1972년 10호, p. 2.

을 단지 사실로서 받아들일 필요성 때문이다.³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金日成主義」라는 용어는 「金正日에 의해서 재해석된 金日成의 主體思想」 혹은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로서의 김일성주의」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金正日是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면서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이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 체계입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선행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야말로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자상, 지도 이론, 지도방법입니다.”³⁷⁾

김일성주의에 대한 김정일의 이와같은 정의에 대하여 북한은 “이 명제에서 우선 내용과 구성체계라는 상호연관된 두 시점으로부터 김일성주의의 전모를 밝히고 그 독창성을 입체적으로 부각시켰다”³⁸⁾고 김정일을 추켜 세우고 있다.

북한은 또한 「명제」로까지 이끌어 올린 이 김정일의 정의로부터 김일성주의의 체계를 도출해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란 자연과 사회에 관한 전일적 안목을 주는 철학적 원리와 혁명적 세계관을 뜻하며, 이론은 혁명투쟁에서 작용하는 객관적인 법칙들과 원리적 문제들을 밝힌 혁명의 학설이다. 그리고 방법은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대중영도의 방법이다.”³⁹⁾

36) 북한에서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부인하기 보다는 기정사실로 인정할 때 오히려 의미있는 분석과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37) 탁진외, 전계서, p. 16.

38) 상계서, 동면

39) 상계서, 동면

이처럼 김일성주의를 정의한 김정일은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사회, 공산주의사회 건설과 완성과정을 김일성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개조과정,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과정으로 보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사업의 총적 임무로 규정하였다. 김정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방침을 밝히면서 그 본질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입니다.”⁴⁰⁾

이것은 요컨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기초로하는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가 점령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이 사상정신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물질문화적으로 풍만한 사회, 사람들의 다양한 개성이 고도로 발양되면서도 그것이 하나로 조화되어 대화합을 이루는 인류 최고 이상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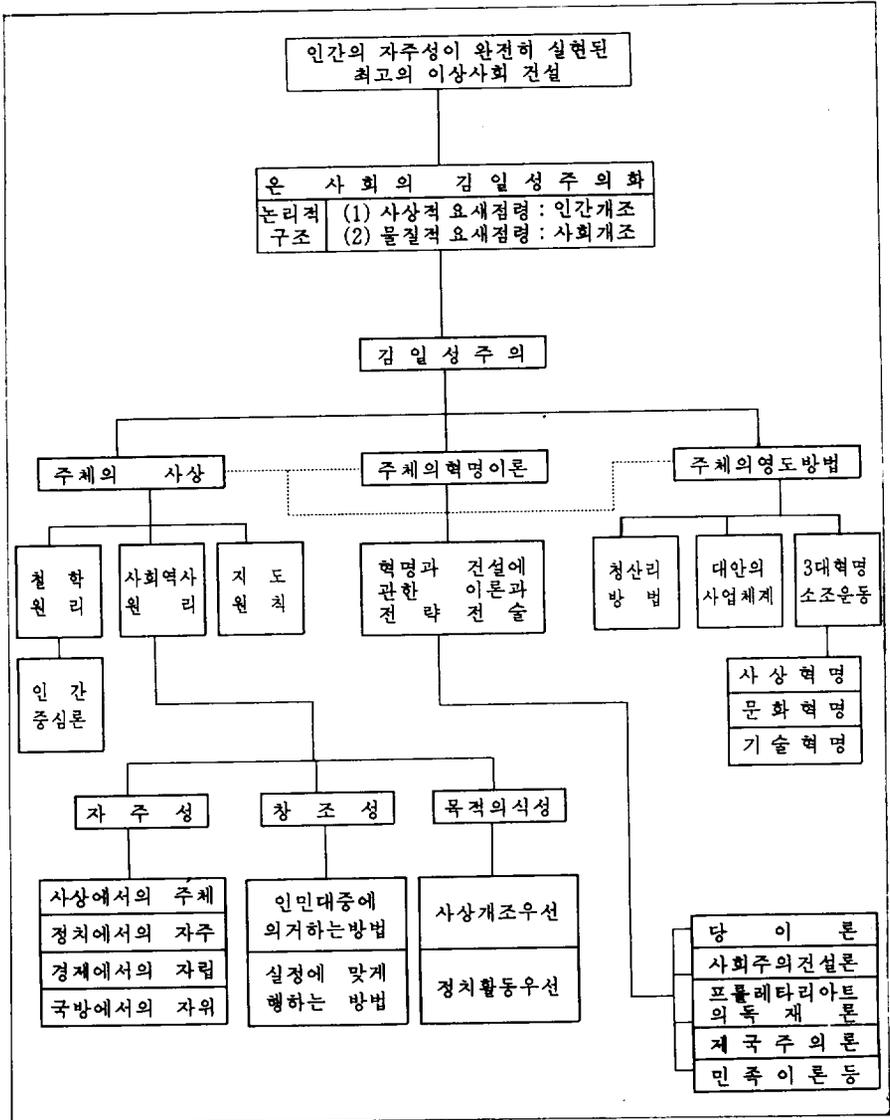
김정일의 여러 논문과 북한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김일성주의의 체계를 도식에 옮겨보면 다음의 <표1>와 같다.⁴¹⁾

그러면 이하에서는 체계화되고 정식화 되었다는 김일성주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0) 상계서, pp. 19~20. 또한 김정일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여야 하며,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7년, 7월 p. 9. 여기에서 김정일이 주장하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상통하는 것이다.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내용은 김일성이 1986년 발표한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경험” 참조, 전문은 「근로자」, 1986년 6호에 실려있음.

41)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8), p. 82.

〈표1〉 金日成主義의 體系



1. 주체의 사상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의 사상이 김일성주의의 진수이며,⁴²⁾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혁명의 근본 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밝혀주는 완벽한 혁명학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³⁾

그리고 이러한 주체사상은 ① 인간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②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역사관 ③ 주체의 지도원칙의 정연한 이론체계를 확립한 사상으로 된다.

(1)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대한 논의는 종래의 철학사상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된다. 즉,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자면(반드시)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종래의 철학적 세계관에서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의 원리와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변증법의 원리는 밝혔으나, 이러한 철학적 원리로써는 물질세계의 일반특징은 밝힐 수 있어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은 해명할 수 없다.”⁴⁴⁾는 것이다. 따라서 “유물론과 변증법이 세계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것을 해명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42) 탁진 외전게서, p. 17.

43)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전계논문.

44) 상계논문, p. 5. 이에 대한 북한측의 부연설명은 리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 41~42 참조

발전된 물질인 인간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밝혀주어야 한다”⁴⁵⁾는 것이다.

이와같은 기존 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김정일은 “(그러므로)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만이 물질적 세계의 일반적 특징을 밝혀주는 원리와 인간의 본질적 특징을 밝혀주는 원리를 다같이 포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주체의 세계관은 지난 시기의 철학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던 일면성을 극복하고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심오하게 포괄적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⁴⁶⁾고 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가 맑스주의 철학보다도 우월한 것임을 선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중심의 철학적 원리란 무엇인가.

金正日은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위주의 철학적 원리이다.”⁴⁷⁾ 라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自主性, 創造性, 意識性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명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김정일은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개조자로서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지 못한 「맑스주의 철학」이나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혁명적 변혁을 부정하는 부르주아 인간 철학」과는 달리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고 한다.⁴⁸⁾ 그리하여 “사람

45) 김정일, 상계논문, p.6.

46) 전계논문, 동면

4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계논문, p.81.

48) 김정일,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4. 4호, p.3.

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존재로 된다⁴⁹⁾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로서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라 한다. 즉,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여,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⁵⁰⁾

창조성은 자주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루는 것으로서,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즉, “창조적으로 하여 사람은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이로운 것으로 개변시켜 나간다⁵¹⁾는 것이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라고 한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또한 의식성으로 하여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가 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이다.⁵²⁾

결국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를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대하며,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게 된다는 것⁵³⁾이 주체사상의 인간관으

4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상계논문, pp. 81~82.

50) 전계논문, p. 82.

51) 상계논문, 동면

52) 상계논문, p. 83.

53) 상계논문, 동면

로 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인간관은 인간의 주체를 혁명의 주체로 대치시키고, 공산당,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에 복종하는 인간형의 창출과 대중동원의 논리적 근거로 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실제로 김정일의 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하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⁵⁴⁾는 것이다.

金正日은 이러한 논리를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김일성수령의 역사상 처음으로 구별한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중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에 있는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수뇌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 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54)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전계논문, pp. 12~13. 북한에서 발행되는 정치용어사전에 의하면 「수령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건한다. 당이 노동계급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형태라면 수령은 당의 최고지도자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총체를 영도하는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이 없이는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수령의 영도가 없으면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195~196.

55) 상계논문, pp. 12~16.

북한은 이러한 논리를 개인의 자유의 문제를 해명하는대로까지 연결지우고 있다. 요컨대 수령과 지도자의 지도역량에 절대 복종해야 개인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한편 맑스에게 있어서 자유는 인간의 자기창조행위에 근거한다. 즉, 하나의 존재가 자립적이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주인일때만 가능하며, 자기의 주인이란 존립의 근거를 스스로에게서 가질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⁵⁶⁾ 이렇게 볼 때 김일성주의의 인간관은 맑스주의를 이탈하여 개인전체의 지반위에 서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2) 사회역사원리

북한의 이론가들은 김정일이 앞서서와 같이 주체의 원리에 근거하여 해명된 사회역사원리들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전면적으로 밝혔다고 한다.⁵⁷⁾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역사원리는 새로운 사회역사관, 주체사관이다”⁵⁸⁾ 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통해 사회역사운동의 주체, 본질, 성격, 추진력을 해명하고 있다.

김정일은 “근로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⁵⁹⁾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⁶⁰⁾ 라고 하여 역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임을 규정한다. 나아가 그는 “역사의 진전을 멈춰 세우고 되돌려 세우려고 하는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착취계급은 역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되며, 계급사회의 전노정은 역사의 창조자와 역사의 반동 다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과

56) Erich Fromm, Das Menschenbild bei Marx(Europäische : Verlagsanstalt, 1980. p. 44.

57) 탁진 외전게서, p. 366.

5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계논문, p. 85.

59) 상계논문, 동면

60) 상계논문, p. 86.

반동적 착취계급간의 첨예한 투쟁의 역사”⁶¹⁾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역사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金正日에 의하면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하고, “사람은 사회적 연속과 자연의 연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연속에서 해방되어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인간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⁶²⁾는 것이다.

이어 김정일은 사회역사운동의 성격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고 하고, 그 개조의 방법을 밝히고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민대중은 창조적 노동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재부를 만들어 왔으며, 낡은 것을 변혁하는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사회는 발전하여 왔다.”⁶³⁾ 특히,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키워 왔다”는 것이다.

끝으로, 역사의 추진력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김정일이 밝힌 사회역사원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선전하고 있다.⁶⁴⁾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란 자기의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⁶⁵⁾

61) 상계논문, pp. 86~87.

62) 전계논문, p. 90.

63) 상계논문, p. 95.

64) 탁진 외, 전계서, p. 370.

6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계논문, p. 98.

(3) 지도원칙

북한은 어떤 사상이 혁명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원리와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적 원칙까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주체의 사상은 그 점에 있어서도 완성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⁶⁶⁾ 즉, 주체사상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완비된 지도적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역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그들의 주동적인 활동을 높이기 위한 방도가 체계정연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⁶⁷⁾

먼저, 주체사상의 지도원칙으로서 하나는 자주적 입장으로 김정은은 “김일성수령은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내놓았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 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원칙이다.”⁶⁸⁾ 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의 또 하나의 요소로 창조적 입장, 특히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창조적 방법에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즉,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가는 것은 혁명운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는 것이다.⁶⁹⁾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지도원칙은 사상기본적 입장으로, 김정은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

66) 탁진 외, 전계서, p. 371.

67) 상계서, pp. 371~372.

68) 김정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계논문, p. 102.

69) 상계논문, p. 115.

으로 개조하는 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제시하면서 사상개조를 통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강조하고 있다. 즉,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⁷⁰⁾는 것이다.

2. 주체의 혁명이론

김일성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의 하나라고 하는 주체의 혁명이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인식한 사람들,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실천활동의 지침을 주고 있다.”

⁷¹⁾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주체의 혁명이론은 주체사상의 이른바 인간중심론을 정치경제학의 제범주들에 도입하여 정치경제학의 여러 개념들을 변형시킨 것으로서⁷²⁾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맑스-레닌주의 이론가들이 언급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들의 이론중 특징적인 것 몇가지만 골라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혁명적 수령론

레닌은 “공산당만이 프롤레타리아트와 전체 근로자대중의 전위를 통일하고 육성하며, 또 조직할 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대열에 끌어들이 수 있다”⁷³⁾고

70) 상계논문, p. 120.

71) 탁진 외, 전계서, p. 17

72) 양호민 외, 「북한 사회의 재인식 I」(서울: 한울, 1987) pp. 70~71.

73) 강인덕 외, 「공산주의원전대제」(극동문제연구소, 1984), p. 913과 p. 971 참조.

주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인민대중이 실제로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지도자의 지도와 결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주의가 표방하는 당 이론은 레닌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당의 지도보다 수령의 지도에 모든 것을 귀결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당의 위업은 代을 이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이 제시하고 있는 당에 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영도적 역량이 다.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사회와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옹계 움직여 나갈 수 없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는 그 어떤 부정부적 사회가 아닌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움직여 나가자면 당과 같이 강한 조직력을 가진 향도적 역량의 정치적 영도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정치적 영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할 수 없다.”⁷⁴⁾

이어서 김정일은 “우리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 있게 건설해 나가야 한다”⁷⁵⁾고 하고 이는 「全黨을 主體思想化」하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김정일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⁷⁶⁾ 또 “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킨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수령을 영원히 우리

74) 김정일,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ㅉ·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근로자」 1982년 11호, p. 20.

75) 상계논문, p. 160.

76) 상계논문, p. 160.

당의 수위에 놓고 그가 내놓은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대대손손 관철하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⁷⁷⁾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선로동당=김일성당」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주의가 천명하고 있는 당이론은 김일성부자 권력승계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한 선전책자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과 천에하는 지도자의 사상과 의지대로 일치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으로, 단련된 군대처럼 조직적이고 규율적인 당, 정치적 정예부대로 급속히 성장하는 새로운 시기에 들어 섰으며”⁷⁸⁾ 이는 “김정일동지의 업적”⁷⁹⁾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데서도 그러한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이러한 그의 당에 관한 생각을 곧바로 혁명적 수령론에도 연결시키고 있다. 즉, 혁명의 주체는 그들이 걸으로 내세우듯이 인민대중이 아니라 수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전속되어야 합니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입니다.”⁸⁰⁾

그런데 여기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라 할 때 그것은 삼자가 같은 지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 앞에서 드러난대로 당은 수령의 당으로서 전적으로 수령의 지배를 받으며 인민대중 역시 수령의 교시대로 따라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당과 인민대중이 수령의 지시에 따라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위에 인용된 김정일의 글을 해설하고 있는 북한의 한 논문은 그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노동계급의 수령이 당과 대중과 통일체를

77) 상계논문, p. 160.

78) 탁진 외, 전계서, p. 70.

79) 상계서

80)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7년 7호, pp. 12~13.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결코 수령이 당과 대중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령문제를 옳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과 대중과의 관계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핵심적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⁸¹⁾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해설논문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보는 것은 혁명주체 형성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 요구이다”⁸²⁾라고 함으로써 혁명적 수령론을 필연적인 역사적 요구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다. 동 해설논문의 저자인 리상철은 수령이 역사와 혁명의 주체로서 당과 대중의 우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수령만이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전면적으로 체현하고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인민대중 전체의 리익의 최고 대표자로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러한 수령만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하나로 집중시키고 그것을 체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³⁾ 이와 함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식이 없고 변할 줄 모르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다름아닌 자기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어 가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⁸⁴⁾

따라서 김정일과 「김일성주의」가 주장하는 당에 관한 생각은 레닌의 그것으로부터도 완전히 이탈하여 혁명을 위한 이론보다도 개인전제와 승제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는대로 귀결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김일성주의가 휴머니즘의 산물이라고 주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바로 여기 혁명적 수령론에서 찾을 수 있겠다.

(2) 사회주의 건설론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사회주의 사회

81) 리상철,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적 수령관의 기초적인 원리”, 「철학연구」 1988년 2호, p. 10.

82) 상계논문, p. 11.

83) 상계논문, p. 11.

84) 상계논문, p. 15.

의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그 과도적 성격이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이다.⁸⁵⁾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역사적 전환으로 되지만, 그것은 결코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면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중국적으로 청산되지만 사회성원들 사이의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물질생활 수준에서의 차이는 남아있게 되고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구별되며, 과도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이 그 본질적 특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적 특성은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에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그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그 과도적 성격이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은 사회주의의 두 측면을 다같이 고려하고 이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金正日式 社會主義 建設論의 전제가 되고 있다.

(3)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은 그들의 과도기론의 일부로서 제시되고 있다.⁸⁶⁾

김일성은 “과도기가 끝나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과도기가 끝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도 끝난다고 보는 고전적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수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과도기가 끝나더라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들어가자면 혁명과 건설을 계속하여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배분을 받는 수준까지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없이 이 임무를 수행

85)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근로자」, 1983. 5호, p. 8.

86) 양호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론”, 양호민 외, 전계서, p. 121.

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하다. 그러므로 과도기가 끝나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⁸⁷⁾

金正日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은 김일성의 그것과 별차이 없이 전개되고 있으나 특이한게 있다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그 무기인 인민정권이 강화해야 한다”⁸⁸⁾고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과도기가 끝난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4) 제국주의론과 민족관

김정일은 “맑스에 의하여 개척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현 시기에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 나가는 것이다”⁸⁹⁾라고 전제하고,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지배와 약탈은 없어질 수 없으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약탈이 존재하는 한 그를 반대하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김정일은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⁹⁰⁾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도식을 가진 金正日의 제국주의론은 곧바로 민족의 문제와 결부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 역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위력을 不敗의 것으로 만들자면 통일단결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민족부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역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그를 이루고 있는 매개 민족부대를 강화하고 힘을 강화함으로써만 전반적 위력을 강화할 수 있다.”⁹¹⁾고 함으로써 각국 민족들을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87) 전계논문, pp. 121~122.

88)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전계논문, p. 12.

89) 상계논문, p. 18.

90) 상계논문, 동면

91) 전계논문, 동면

3. 주체의 영도방법 : 군중로선

주체의 영도방법은 “모든 것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을 발동하여 해결해 나갈데 대한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와 역사의 주체로 자각된 사람들의 창조력을 배가하고 그 힘을 자주의 새세계를 창조하는 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도를 밝혀 주고 있다”⁹²⁾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 「혁명적 영도방법」의 기본요구는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한다⁹³⁾ 그리고 그것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⁹⁴⁾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제, 3대혁명소조운동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는 것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의 사업방법은 “돈과 채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나 행정식·명령식 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⁹⁵⁾이다. 즉, “이 사업방법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실정에 깊이 료해하여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위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 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 특성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인 사업방법”⁹⁶⁾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주체의 사업방법은 “언제나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치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니고 대중이

92) 탁진 외, 전계서, pp. 17~18.

93)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전계논문, p. 16.

94) 탁진 외, 전계서, pp. 29~30.

9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계논문, p. 117.

96) 전계논문, 동면

온갖 창의 창발성을 다 내도록 이끌어 주는 방법⁹⁷⁾, 즉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방법인 것이다.

4.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

(1) 김일성주의의 독창성과 보편성문제

김정일에 의하여 재해석된 김일성의 사상, 즉 「金日成主義」가 맑스·레닌주의보다 더 우월한 이론이요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다. 즉, 김일성주의는 수령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영원한 생명력을 확인한 김정일에 의하여 처음으로 온 세상에 선포된 과학적 정식화였다는 것이며,⁹⁸⁾

또한 그것은 맑스·레닌주의가 확립한 혁명적 세계관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완성시킨 「獨創的」인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북한은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주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普遍性」까지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북한이라는 영역내에 국한시켰으나,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고 주장한 이후부터는 그 적용범위를 세계어로 확대하여 김일성주의가 보편성을 가진 사상이요 이론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⁹⁹⁾

그렇다면 북한은 어디에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과 보편성의 근거를 찾고 있을까.

북한측의 문헌들은 이 근거를 대개 다음의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소위 김일성주의를 창시한 김일성과 그것을 발전시킨 김정일의 탁월하고 비범한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을 「비범한 사상·이론적

97) 상계논문, 동면

98) 탁진 외, 전계서, pp. 15~16.

9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계논문, pp. 77~78.

예지」와 「위대한 사상이론 활동」을 벌인 인류사상발전의 상상봉에 서있는 가장 절출한 사상가¹⁰⁰⁾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김정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이론 활동으로 김일성의 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이라는 것을 독창적인 명제와 철학의 논리, 심오한 원리들로 빛나게 천명하였다”¹⁰¹⁾ 고찬양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김일성주의가 독창적이고 보편성을 띠게 된 것도, 그리하여 북한을 「세계혁명의 조국」으로 되게 한 것도, 오직 이들父子의 탁월하고 비범한 예지와 능력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그들의 수령이요, 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맑스와 레닌 등 소위 「탁월한 로동계급의 수령」¹⁰²⁾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김일성사상의 「主義」化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³⁾

둘째, 김일성주의가 독창성을 띠게 되는 것은 그것이 조선혁명의 실천적 요구에 기초하여 창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론과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고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야 기성 이론을 자기나라 혁명의 이익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

100) 김정일은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주적 새 세계를 창조하는 우리시대 혁명운동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김일성주의의 보편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도 “주체사상은 그 정당성과 ‘보편적 진리성’으로 하여 인류의 사상 정신생활과 세계의 혁명적 변화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을 힘있게 주동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계논문, p.133. 및 「로동신문」 1987년 4월. 2일자.

101) 리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논문〈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379.

102) 김창원,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 「근로자」 1987년, 12호, p. 8.

10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계논문, p. 77.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이들 탁월한 수령들에 의해서만 창시된다고 한다.

은 사상과 이론을 창조할 수 있다.”¹⁰⁴⁾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혁명의 실천과정이라는 오랜기간을 통하여 창시·발전·완성되어온 김일성의 사상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지도자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⁰⁵⁾

세째, 김일성주의가 보편성을 띠게 되는 것은 그것이 “시대발전의 기본추세와 그 중심에 서있는 인민대중의 저항을 옹기 반영한 사상”이며, “새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답을 준 사상”¹⁰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의하면, 사상과 이론이 보편성 생명력을 가지려면 (1) 그것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저항을 폭넓게, 깊이 있게 반영하며 아울러 그 실현방도를 정확히 밝혀주어야 하고, (2) 공산주의운동의 본성과 그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3) 선행단계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계승하며, 그것을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¹⁰⁷⁾ 그런데 김일성주의는 이러한 조건들을 완벽하게 구비한 사상이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성과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김일성의 사상은 “오늘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저항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세계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¹⁰⁸⁾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주의의 독창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와같은 북한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맑스·레닌주의의 원칙들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후자의 경우 북한의 특수한 환경에서 도출된 것을 세계 혁

104) 박한식교수도 「북한기행」에 발표된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가장 진보적이고 완전한 사회주의 이론가이며, 따라서 그의 지혜와 지식을 세계 도처의 피압박민을 해방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북한기행」, 전제서, p. 123.

10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제논문, p. 80.

106) 상계논문, pp. 80~81.

107) 「로동신문」, 1987. 4. 2일자.

108) 상계신문

명의 일반 이론으로 보편화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가진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환경, 조건들로 인하여 북한혁명의 이론인 「김일성주의」가 일반이론¹⁰⁹⁾으로 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이 인간해방의 모든 문제를 밝혀 주었다는 주장은 독단에 지나지 않는다.

(2) 맑스·레닌주의와의 관계

북한은 스스로를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사회주의국가”¹¹⁰⁾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맑스와 레닌의 용어·논리를 부분적으로 떼어내어 김일성주의를 체계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¹¹¹⁾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 있듯이 김일성주의의 독창성과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김정일은 이 문제를 계승과 혁신(독창성)이라는 개념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은 “사물의 발전이 계승과 혁신의 두 면을 가지고 있듯이 혁명사상이 발전하는 경우도 계승과 혁신의 두 면을 가지게 된다.”¹¹¹⁾ 하고,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혁명원칙을 다 계승하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발전

109) 리상걸, 전계서, p. 339.

110) 김정일의 맑스주의의 변혁논리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바, 레닌에 의한 맑스주의 변혁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는 레닌에 의한 맑스주의 변형이 불가피했던 시대적 요구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이행의 과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일정에 올라있지 않던 시대에 그 학설을 만들었다. 레닌은 그 최종단계, 즉 제국주의에 들어선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시대, 즉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가 성립하는 시대가 도래한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맑스주의로 발전시켰다” 「マルクス主義·哲學·基礎」

(동경: 靑木書店, 1980), p. 48.

11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전계논문, p. 8.

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발전 풍부화시키고 있다.”¹¹²⁾ 주장한다. 그는 또한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이론과 전략전술을 밝힌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¹¹³⁾이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적 입장에서 옹계 적용해 나가야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고 새로운 혁명이론을 창조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¹¹⁴⁾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혁명학설이며 그 발전은 선행한 혁명사상을 계승하고 혁신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계승과 혁신이 인류의 진보적 사상발전의 합법칙성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김일성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우리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사상”¹¹⁵⁾으로서 그와 같은 합법칙성을 따르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계승성과 독창성의 두 측면을 동시에 주장하면서도,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그 독창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사상간의 관계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입장은 그 독창성을 주로해서 계승성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¹¹⁶⁾

112) 상계논문.

113) 상계논문.

114)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전계논문, p. 6.

115) 「로동신문」, 1987년 4월 2일자.

116) 이러한 김정일의 주장은 김일성과 대조적이다.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의 기초에 불과하며 그것은 특정국가의 토착적 조건에 따라 첨가와 수정이 요구되는 원재료”라고 하면서도, 주체라는 개념은 그가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고 맑스-레닌주의라면 모두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지적하였고, 또 원래 진정한 맑스주의라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는 이 문제를 강조했을 따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일성은 독창성보다는 계승성을 더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맑스·레닌주의와 다른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김정일의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그 해설서를 통하여 그 요점만을 뽑아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¹¹⁷⁾

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간중심의 주체 철학적 원리

② 인류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지향한 투쟁의 역사이며, 사회역사의 주체는 바로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관적 사회역사원리

③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써 자주성, 창조성과 더불어 특히 목적의식성(사상성)을 강조하는 주체적 지도원칙

④ 당이론에 있어서 당의 역할보다도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

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론에서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임무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

⑥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민족주의론의 전개

⑦ 사회주의 건설론에 있어서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계속혁명론의 전개

⑧ 소위 「혁명적 군중노선」으로 표현되는 주체의 영도방법 등이다.

북한에 의하면 이상의 것들은 김일성주의가 담고있는 이론적 독창성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것 하나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레닌, 스탈린, 모택동 등의 저작을 읽다보면 북한에서 독창적이라 주장되는 내용과 문구들이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¹¹⁸⁾ 예컨대, 김일성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主體」라든가 「인간중심론」도 맑스주의의

117)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문우사, 1988), pp. 190~120 참조.

118) 김갑철, “주체사상의 이론구조와 그 비판연구방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북한통치이데올로기 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 327~328;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pp. 115~128. 참조.

金日成主義의 展開와 理論體系

〈표2〉 金日成主義와 맑스-레닌주의의 비교

영역	金日成主義	맑스-레닌主義
社會的 目標 (理想 社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자주성이 최고로 실현된 사회 —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데 대한 김일성주의의 요구가 완전히 구현된 사회 — 모든 사회성원들을 김일성주의의자로 개조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필요 — 김일성 부자가 계속 통치할 수 있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재산이 철폐되고 인간의 자기 소의가 극복된 무계급사회 — 공산주의는 전 인류의 미래에 필연적 형태 — 실천적 휴머니즘 — 사회적존재로서 인간자신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발전이 이룩한 모든 풍요로움을 보존하는 인간의 완전하고도 의식적인 회복이 달성되는 사회(맑스)
世界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중심의 세계관 —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함 —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함 — 인간의 정신활동, 의식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실천영역에 있어서 현실적인 사회적 조건을 경시하게 됨 — 수령중심의 세계관으로 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론적 세계관 — 물질, 즉 생산력이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결정함 — 인간의식의 역규정성을 인정하긴 했으나 선차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임(맑스)
人間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최고로 발전된 물질적 존재 — 자주성, 창조성, 목적의식성을 가짐 ○ 육체적생명과정치적생명을 가진 존재 — 정치적생명이 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함(자주성) — 혁명적수령론의 인간학적 근거이며 인간에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수령임 ○ 추상적인 인간관 — 인간의 주체를 수령의 주체로 대체시키는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적 존재 — 물질생활이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생활을 조건지움 ○ 類的存在 ○ 유적존재의 발전적 개념으로서 사회적 존재 — 노동과 자신의 생산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불가분의 존재가된 인간 ○ 구체적인 인간(맑스)
歷史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의 주체 : 인민대중 —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함—따라서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인민대중이 아니라 수령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의 주체 : 프롤레타리아트 —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혁명적인 계급 — 생산력이 발전하는 조건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역사발전의 추진계

金日成主義의 展開와 理論體系

영역	金日成主義	맑스-레닌主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의 본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 —자주성은 수령의 지도를 충실히 따를 때 보장됨 ○역사의 추진력: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각과 자기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가지려면 수령과 당의 지도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으로 됨 ○역사의 본질: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계급투쟁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그 모순 ○역사의 추진력: —생산력의 발전 —그것에서 발생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
<p>革命과 建設論</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指導原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성의 원칙 ○창조성의 원칙 ○사상성(의식성)의 원칙-혁명적수령론으로 귀결 2. 革命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성을 위한 투쟁 ○인간의 의식적 투쟁 ○혁명의 대상 —사회제도의 교체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축하는 낡은 사상, 문화를 개조하는 것 ○혁명의 원동력 —인민대중의 혁명의지 —수령의 지도가 필요 3.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병행추진 ○장기에 걸친 독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革命的 指導原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르크스: 계급투쟁(조건으로 사회적 생산력 강조) ○레닌: 主義主義 ○모택동: 무산계급으로서 농민역할 증시 2. 革命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권력의 타도와 낡은 생산관계의 해체(본질) ○주의주의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증시 ○혁명의 대상 —지배계급의 타도와 사회제도의 교체 ○정치도덕적 자극 ○혁명의 원동력 —생산력(맑스) 3.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만 적용 ○민족보다 계급을 증시함
<p>民族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함 —소위 남반부 해방론으로 연결시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보다 계급을 증시함

초기 저서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된다. 또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도 환경에 따른 적응일 뿐이지 독창적이라 볼 수 없다. 맑스는 노동계급을, 레닌은 노동계급과 그가 지도하는 농민을, 모택동은 무산계급이라는 이름에서의 농민을 사회역사의 주체로 내세웠으며, 심지어 네오 맑시즘은 미국에서 학생, 지식인, 여성, 흑인까지도 그 주체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밖에 사상의식성의 중시, 계속혁명론 및 군중노선에 입각한 영도방법이라는 것도 중국의 모택동에게 차용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즉, 계속혁명론은 모택동의 不繼혁명론에서, 군중노선은 중국의 독특한 군중노선으로부터 대중지도방법과 표현까지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실제 김일성주의에서 독창적인 것이 있다면 인민대중의 주체를 수령의 주체로 바꿔놓은 혁명적 수령론이 있을 따름이다. 그밖의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으며, 더욱이나 「主義」로써 불리울만한 이론적 독창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일성주의는 수령 한사람의 주체와 북한주민의 연속을 엮어 놓은 것이며, 그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있어서 분산되고 단편적인 사고들을 무리하게 엮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IV. 김일성주의와 내외환경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는 북한체제가 내외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북한인민을 통제하고 지도해 나가기 위한 의도에서 형성·전개되어 온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북한 체제를 둘러싼 환경은 북한체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외환경의 변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북한은 이 흐름을 김일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계속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제의 어려움에 직면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정을 통합으로써 변화해 가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하는 문제가 김일성주의에 대한 전망에서 그 실마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내환경을 살펴보고, 이 변화가 김일성주의에 미칠

영향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1. 신데탕트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대북한 화해정책

북한 대외환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이며 나머지 하나는 한국이 전개하는 대북한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대외환경에 직면하여 이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먼저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살펴보자. 현 단계의 국제정세를 살펴보자. 현 단계의 국제정세의 흐름은 한마디로 新데탕트라는 국제환경의 해방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공존 공영하는 관계를 모색하게 됐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러 국가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¹¹⁹⁾ 이미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간에 서로의 이익이 되는 범위내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이데올로기의 축이 기본이 되어 형성되어 온 북한의 대외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북한의 강력한 이념적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이 맑스-레닌주의 맹목적 추종이 자멸의 길임을 깨닫고 이념적 적대국가들과의 공존을 통해 살길을 찾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들은 체제개혁과 개방을 결정하고 이념적투쟁을 잠정적으로 접어든 채 탈이념적 국제협력의 길을 열고 있다. 그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그들은 북한의 강력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중요한 경제협력국으로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관계가 확대-심화되어 가면 그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국교와 연결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들 두나라는 북한도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토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동구제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헝가리와는 대사급 대표부가 양국의 수도에 설치되었고 유고슬라비아와는 이미 그리고 동독,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슬라바키아, 루

119) Time, 1988년 6월 13일, pp.8~14

마니와는 내년내에 무역사무소가 설치되거나 될 예정이다. 또한 역으로 미국과 일본 역시 이념과 체제의 상이점을 접어둔 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남·북한간의 냉전적 체제를 허물고 교류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정세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데올로기 중심적이고 혁명 우선주의인 김일성주의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두번째로 한국이 떠나갈 새로운 대북한 정책의 성격과 그것이 김일성주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자.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상호주의 입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북한을 약화시키고 고립화시켜 한국의 통일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한간의 국력차이나 변화해 가는 국제환경을 감안한다면 '북한고립화'정책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떠나가려 하고 있다.¹²⁰⁾

새로운 대북한정책은 "북한에 살고 있는 2천만 동포도 우리의 민족공동체의 일부이기에 이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은 북한정권의 반응에 구애 받지 않고 앞장서서 해 나간다는 데"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¹²¹⁾ 새로운 대북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和解를 추구해 나가고 북한을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떠나갈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두 가지 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과 다각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며, 둘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수용해 나가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이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당국가들과의 협력체제를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북한이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과 국제협력의 길을 과감히 걸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120) 한국의 새로운 통일정책은 아직 체계화 되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7·7선언」·「8·15제의」·「10·4국정연설」·「10·7대북한 교류개방조치」·「10·20 UN총회에서 노대통령연설」 등에서 그 윤곽이 제시되고 있다.

121) 이상우, "국제정세 변화추세와 민족통일의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개교 50주년 학술심포지엄(1988. 5. 6) 주제발표문, pp. 5~7.

위에서 살펴 본 新대탕트시대의 전개와 한국의 대북한화해정책의 추진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상호협력의 시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환경의 새흐름에 적응하여 할 때는 북한은 '자주'와 '자립'의 신화에 바탕을 둔 김일성주의가 장애요소로 됨에 틀림없다. 그것은 자칫하면 북한사회 내부의 심각한 동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우려는 최근 한국-헝가리 상주 대표부 설치 발표 이후 나온 로동신문('88년 9월 19일자)의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행위」기사와 노동신문(88년 9월 25일자)에 실린 김정일의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연설문과 88년 10월 10일 발간된 김정일의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운데 대하여」라는 책자에 대한 대대적 정치학습에 서도 찾아 볼 수 있다.¹²²⁾

2. 경제발전과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격상시켜 보다 체계화 시킨 김일성주의는 북한의 산업화과정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필요가 없다.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북한은 바로 인간의 의지력을 강조하는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의 군중노선을 결합시키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계급의 적'을 만들어 내어 인민들의 노동력을 물질적 보상없이 무제한 동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항일빨치산운동을 그 聖典의 神話로 내세운 김일성주의의 시대착오적 멘탈리티 속에서 이기심의 억제와 순교자적 혁명가의 희생정신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침체와 부진에 빠지고 말았다. 여기서 북한은 그 원

122) 김정일의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87년 9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로 되어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로동신문」 1988년 9월 15일자이며,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88년 10월 10일이다.

인을 인민의 이데올로기적 후진성에다 돌리면서 인민들은 사상적으로 더욱 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는 인민에 대한 김일성주의 내면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주의의 자력갱생적 원칙이 계속 강조되고 경제의 內延的 生産方式만에 집착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볼때 북한경제는 여타 제3세계, 특히 남한과 비교하여 크게 낙후될 것이 틀림없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불평 불만 등 반사회적 풍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난 2월 20일 당중앙위 정치국회의의 「200日 戰鬪」와 관련해 채택한 편지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¹²³⁾

이미 북한은 침체속에 경제를 회복시키고, 산업화를 위해 들어온 외채를 갚아야 하며,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1984년 9월의 '습鬻法'이 바로 그것이며, 이러한 개방화의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 없다.¹²⁴⁾ 그러나 북한이 당면하게 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개발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그러한 불가피한 개방이 초래할 대내적 결과에 대한 우려이다. 즉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고 자신의 사회를 '지상낙원'으로 알고 살아온 북한 인민들에게 비쳐질 외부세계의 모습과 자신들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미칠 영향이다.¹²⁵⁾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체제는 앞으로 김일성주의의 사상지도 원칙, 즉 정치가 경제를 지도하며 인간의 주관적 의지가 객관적 또는 경제적 법칙에 우

123) 「로동신문」, 1988년 2월 21일자 북한은 「200일 전투」와 관련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채택된 편지에서, “반혁명세력이 우세해질 때마다 혁명을 배반하고 적에게 투항하는 세력과 적의 공세를 맞받아 나가는 참다운 혁명가 등 두 세력이 나타난다”고 지적, 북한내에 생활고에 대한 인민들의 불평불만, 사회일탈 행위 등 반사회적 풍조가 있음을 엿보이게 한다.

124) “경제건설을 다그쳐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자”, 「로동신문」, 1988년 10월 3일자 사설과 「Le Monde」, 1988년 10월 21일자 참조

125)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창건 40주년 기념보고, 「로동신문」, 1988년 9월 9일자

선한다는 원칙을 계속 강조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¹²⁶⁾ 그러나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결국 체제의 적응력과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김일성주의는 딜렘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렘마 속에서 김일성주의와 김정일 개인숭배에 대한 당내 반발이 현재화 노골화하여 권력투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문제는 북한이 대외개방의 압력과 김일성주의의 견지 사이에 존재는 상충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단기적인 균형과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김일성,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져 버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의 사태가 그러한 역사적 실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내외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대내외정책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독립변수가 된다. 북한이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려 할 때는 김일성주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역사와 정치현실의 산물이며 언제나 변화되거나 혹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김일성주의 또한 북한사회가 당면한 역사적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 또한 바뀐다. 북한의 김일성주의란 김일성 이후에는 「김일성이 없는 김일성주의」가 될 것이며 그것은 그의 아들인 김정일에 의하여 실천될 것이다. 여기서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은 김일성의 존재 유무가 김일성주의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김정일체제는 김일성의 카리스마가 소멸한 상태에서 김일성주의를 유지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결국 김일성주의의 완전포기나 아니면 김일성주의의 변질이나 하는 두가지 방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의 해결방식은 곧 김일성 체제의 완전

126) "자립 경제의 혁명정신으로 200일 전투과제를 넘쳐 수행하자", 「로동신문」, 1988년 10월 9일자 기사

한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결과가 북한사회에 초래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후자인 김일성주의의 변질은 중국과 같이, 모택동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화를 통해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¹²⁷⁾

이렇게 본다면 어떠한 경우도 김정일의 정당성과 권력기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곧 불가피하게 김정일 권력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 자체가 김정일 자신의 주도하게 자신의 권력승계를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127) 중국은 등소평이 중국공산당 11전3중전회의의 준비를 위해 열렸던 중앙공작회의(1978. 12. 31) 개막연설에서 사상해방을 위해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정확한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래 모택동 사상의 격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등소평, "해방사상, 실사구시, 단결일치항전간", 「등소평문선」, p. 131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조정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개방화정책: 등소평체제의 통치이념분석", 「동아연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제8집(1986. 7), pp. 77~98.